

1조 5천억 예산 심의 80분만에 '땅 땅 땅'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용) 위원들 이래도 되나?”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첫 활동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첫 날부터 전체 위원중 1/3이 참석하지 않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구시 교육청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1시간 20분여만에 마무리를 해 수박 겉핥기식 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대구시의회는 15일 예결특위를 열고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2005년도 대구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 9명중 참석인원은 6명뿐으로 3명은 교육청에 대한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예결위원들 전체가 초선이었던 만큼 보다 열심히 예산서를 보고 심도있게 검토해도 모자랄 지경임에도 33.4%가 결석을 해 대

구시의회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린 꼴이었다.

참석한 예결위원들의 예산 심의 내용도 우려할 만 한 수준이었다.

이날 오전 10부터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해 윤용식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에 이어 구자동 대구시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11시 20분까지 계속됐다. 이어 예결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됐으나 별다른 쟁점없이 12시 35분에 마무리됐다.

위원들은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듯 했다.

모의원은 “즉흥식으로 질문을 했다”면서 자신이 무엇을 물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불참위원 가운데 J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청원에 따른 현장답사로 그나마 이해할 정도였을 뿐 L, G의원 등 나머지 2명은 불참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G 의원은 교육청 예산 결산 심의가 끝난 뒤 의회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